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안경

학원 5% 할인
학원/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U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U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여성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5. 03 Vol. 76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6**
2025. 03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누리집 공개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중부

Sports is Busan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GROUND
GOLF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03 Vol. 76

발행일 2025년 3월 14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6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누리집 공개
- 06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 그라운드골프협회 한수홍 회장
- 10 금빛 훈련일지
부산광역시청 남자 펜싱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부산의 전통과 현재가 살아 숨쉬는 - 부산진구 & 동래구
- 22 Sports is Busan
-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26 전국체전 trivia
부산, 전국체전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 비상!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BWC댄스컴퍼니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부산실내빙상장
- 제38회 부산 북극곰축제
- 38 종목 소개
그라운드골프
- 42 스포츠&컬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년 부산체육발전 혁신계획 본격 가동
- 부산광역시체육회-(주)부영티씨
- 46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6 부산체육인



10 금빛 훈련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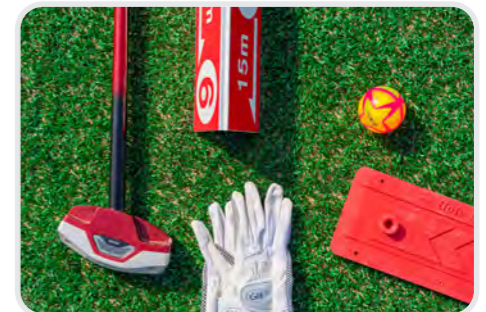
22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38 종목 소개



46 회원단체 소식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 현황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공식 누리집 공개

2월 19일(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이 공개되었다. 누리집은 대회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부산 관광 정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Busan2025_NSF_NPG
부산광역시_제106회 전국체육대회_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에서하나되는대한민국 #제106회전국체육대회 #제45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부산광역시

전국체육대회 소식 제공

부산시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 대회를 찾는 방문객들이 대회와 부산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공식 누리집을 구축하였다. 누리집에는 대회 개요, 경기 정보를 비롯해 성화행사, 개회식, 폐회식 등 대회 관련 모든 정보를 담았다. 추후 대회와 함께 진행될 문화 행사 세부 내용과 셔틀버스 운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공개를 기념하여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퀴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90명에게 치킨, 햄버거, 커피 쿠폰이 선물로 제공되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부산 시민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누리집을 통해 대회 정보뿐 아니라 부산의 맛집,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누리집 활용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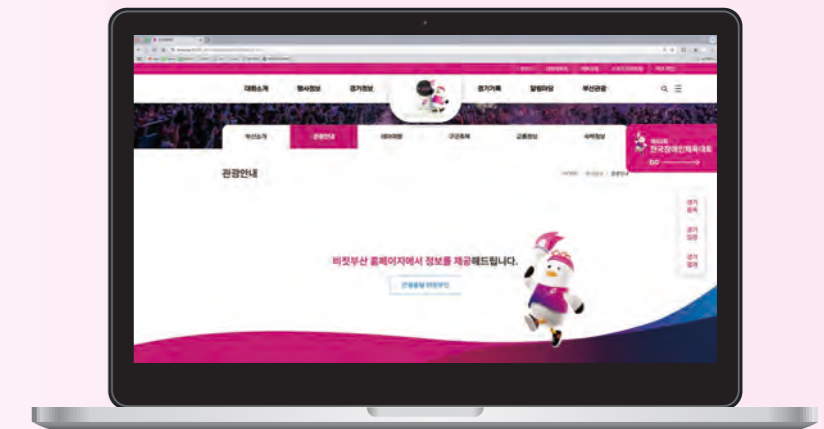
누리집은 크게 대회소개, 행사정보, 경기정보, 경기기록, 알림마당, 부산관광 등 여섯 가지 메뉴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대회소개’에서는 추진 체계 등을 ‘경기정보’에서는 경기일정, 경기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 경기종목 아이콘을 별도로 두어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종목의 경기장 현황 페이지로 바로 가게 하는 등 관련 정보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관광’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축제, 교통 및 숙박 등의 정보는 ‘비짓부산(Visit Busan)’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누리집 바로 가기
https://busan.go.kr/106_sports





남다른 봉사 정신과 경영철학으로 그리는 그라운드골프의 미래

부산광역시 그라운드골프협회
한수홍 회장

2025년, 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한수홍 회장.
기업가이자 체육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협회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가이자 체육인으로서의 40년

대학교 3학년, 이른 나이에 출판·디자인 회사를 설립해 근 40년간 경영해오고 있는 한수홍 회장은 본래 체육을 전공한 ‘체대생’이었다. 체육 외에도 행정, 토목 등 여러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했고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야구, 테니스, 축구, 농구, 사이클… 가리는 것 없이 운동이라면 전부 좋아했습니다. 특히 농구를 가장 좋아하고 잘했는데, 지금도 그 시절 친구들과 만나면 농구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금 제가 경영하는 회사가 체육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

만 나뉘는 성공 비결로 체육으로 다져진 강한 체력을 꼽습니다. 그만큼 체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한 종목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생각에 새삼 긴장이 됩니다.”

거듭된 추천, 협회와의 인연

기업 경영에 전념하던 한수홍 회장에게 협회장 출마를 권한 사람은 체육계 원로인 권중연 원로였다. 지난 몇 년 동안 협회 회장직에 한 회장을 추천했지만, 그때마다 한 회장은 권유를 마다했다. 하지만 ‘협회 얼굴이라도 되어주면 좋겠다’는 거듭된 요청을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



“회장으로서 저야 할 책임이 크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으니, ‘얼굴만 되어주면 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웃음) 오래 망설였지만, ‘일단 하겠다고 결심한 이상 제대로 하자’는 생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앞섰지만 한 회장은 대학 시절 은사가 전한 말을 되새기며 각오를 다졌다.

“은사께서 제게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의 성패는 얼마나 긴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젊은 시절, 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다행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철학은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남들보다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생각합니다. 협회 회장직도 같은 각오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안 되는 핑계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자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꾸준한 사회공헌, 받은 만큼 베푸는 삶

리더십, 통솔력, 시류를 읽는 안목... 협회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심이다. 대외 업무를 비롯해 굵은 일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회장은 일찍부터 지역사회 공헌과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들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엔 무슨 일이든 남몰래 하는 게 힘드네요. (웃음) 본의 아니게 소문이 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능력이 닿는 범위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춘사진’을 촬영해주는 사업인데, 누군가는 단순한 사진 한 장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께겐 그 사진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꿈을 지금이라도 이루어보겠다는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을 시작할 때부터 얻은 만큼 베푸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외에도 부전2동자치위원장직도 수행하며 지역사회 환경미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민들이 처리하기 힘든 민원 건의 등 업무를 솔선수범하고 있는 한수흥 회장. 협회장으로의 4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대외 홍보나 협약체결 과정에서는 제 역할이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일선 실무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알고 협회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용구장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가 위치한 영동군을 방문해서 종목의 활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배우고, 부산의 실정을 고려해 접목할 생각입니다.”

그라운드골프를 모르는 분들에게

한 회장은 그라운드골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체육인들에게 종목의 매력을 알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라운드골프의 가장 큰 특징은 ‘홀포스트’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닥에 파인 고정된 홀 대신 유동적으로 홀포스트를 배치함으로써 같은 구장이라도 매번 색다른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연잔디, 인조잔디 구장은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공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회장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도 인사말을 건넸다.

“협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 취입식을 따로 치르지 않는 바람에 신입 협회장 선출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원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성기를 구가하겠다, 하는 설부른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차 목표로 삼은 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차근차근 필요한 일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그라운드골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관심은 있지만 필드로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 분들, 날이 따뜻해지고 있으니 지금 준비하셔서 필드로 나오시면 어떨까요? 함께할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펜싱, 마침내 사브르를 품다

부산광역시청 남자 펜싱팀

오랜 기간 에페로만 운영했던 부산시청 남자 펜싱팀이 올해 드디어 사브르 종목까지 확장했다.
'올림픽 영웅' 구본길 선수와 촉망받는 유망주 조용준 선수의 합류로 전력을 강화하며,
다가오는 대회에 대한 기대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부산시청 펜싱팀을 만나봤다.



새로워진 부산펜싱, 정승화 감독의 따뜻한 리더십

부산시청 소속이자 2010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정승화 감독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남자 에페 단체전 5위로 유종의 미를 거둔 후, 곧바로 부산시청 펜싱팀 감독으로 부임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선수 생활을 마친 직후라 처음에는 저의 선수 시절 경험에만 의존해 지도하다 보니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트러블도 있었어요.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제 실수를 깨닫게 됐고, 이후로는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함께 팀을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지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감독은 국가대표 시절 태릉 선수촌에서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던 구본길 선수와 다시 한술밥을 먹게 되었다. 그는 사브르팀 신설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오랜 준비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브르의 요람' 동의대와 구본길 선수가 힘을 실어주었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체육국장님, 체육정책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그리고 체육회 박가서 상임부회장님, 신현기 사무처장님, 성기환 전문체육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까지. 도움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시청 에페팀은 선수들 대부분이 부상을 입고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다음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부상 방지'다.

“올해는 부산에서 대회가 열리고, 구본길 선수도 팀에 합류하면서 사기가 굉장히 높아요.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리해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신경 쓰고 있어요. 부상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 하는 일은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정 감독은 팀의 강점으로 어느 팀보다도 강한 단합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팀을 친구이자 가족처럼 이끌고 싶다는 따뜻한 마

음가짐을 내비쳤다.

“펜싱 단체전에서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해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하고, 서로를 믿어야 하죠. 저희 팀은 정말 서로 끈끈하고, 지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감독과 선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운동 선후배자 형, 동생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는 그의 유쾌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웃음) 좋은 쪽으로만 이슈 되도록, 열심히 해보자.”



정승화 감독

부산 펜싱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피, 권재선 선수

권재선 선수는 부산시청 남자 펜싱팀 소속 2년 차이자, 팀에서 사랑받는 막내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표정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도에서는 옷깃만 잡아도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펜싱도 칼을 드는 순간 상대의 수준이 느껴지고, 그런 순간 상대를 속여 내가 원하는 기술로 찌르면 정말 짜릿하죠.”

그에게 현재 팀은 좋은 자극이 되는 곳이다. 주장 안성호 선수는 그에게 운동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롤모델이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모든 선수의 꿈을 이룬 구본길 선수의 합류는 더욱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는 조용준 선수와 함께 팀의 젊은 피로서 열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승화 감독님의 열정에는 혀를 내둘렀다.

“열정이 대단하시죠. 가끔은 저보다 더 뜨거우신 것 같아요. 제가 불을 지피려고 하면 감독님이 휘발유를 들이붓는 느낌이랄까요? 덕분에 팀 전체가 더 쉽게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부산시청 남자 펜싱팀은 기존 4명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 하지만 사브르팀이 신설되고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선수를 응원할 때,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응원해도 인원이 적으니 힘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단 두 명이 늘었을 뿐인데도 훨씬 더 든든하더라고요. 같은 목표

를 향해 함께하는 동료의 힘이 많아진다는 게 큰 힘이 돼요.”

그는 펜싱 선수로서 부산 펜싱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른 지역에서는 10대 때부터 한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팀 색깔을 갖춘 선수가 실업팀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부산에도 사브르팀이 생겼으니, 실력 있고 부산만의 색깔을 가진 선수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돼요.”

다가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그는 강한 각오를 밝혔다. 목표는 단 하나, 금메달이다. 혼자 아닌 동료들과 함께하기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조건 금메달. 목숨 걸겠습니다.”



에페 권재선 선수

부산에서 펼쳐질 구본길 선수의 펜싱 2막

올해 부산시청 펜싱팀에 새롭게 합류하며 구본길 선수는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체력과 스피드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펜싱에서 경험은 무시할 수 없어요. 펜싱의 독특한 점은, 체력이 떨어지면 기술로 보완할 수 있고, 기술이 부족하면 경험으로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서론쯤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부산시청 사브르팀 신설에 구본길 선수가 큰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내저었다.

“물론 저에게도 오랜 소망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죠. 저는 그저 부산에서 펜싱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을 뿐인데, 귀담아들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형준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향은 대구이지만, 그는 자신을 ‘사실상 부산 선수’라고 말한다. 그 중심에는 동의대학교가 있었다. 오은석 선수 등 동의대 출신 메달리스트들을 롤모델 삼아 주저 없이 선택한 대학이자,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 곳이다.

“동의대학교 훈련이 전국에서 가장 힘들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도 ‘1년 안에 여기를 탈출하지 못하면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에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면 펜싱을 그만둘 거야’라는 각오로 훈련에 임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학교 덕분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최근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그는 비록 캠퍼스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국가대표 훈련 중이던 그가 학교를 찾는 날은 후배들에게 작은 축제와도 같았다.

“학교에 가면 후배들을 데리고 캠퍼스 거리에서 친목도 모회를 하곤 했어요. 애들이 ‘본길이 형 오면 오늘은 술

먹는 날이다!’ 하면서 기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코치님께 넌지시 말씀드리면 훈련을 하루 쉬게 되니까, 다들 엄청 신났죠.”

구본길 선수는 올해 10월 전국체육대회 선전과 함께 내년 아시안게임을 바라보고 있다.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다시 대표팀에 합류해 부산시청 소속으로 메이저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다. 또한 부산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부산 펜싱 발전에 기여해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부산에 오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길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따뜻하고 정겹게 맞아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받은 많은 도움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피날레를 부산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부산시청 펜싱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브르 구본길 선수

부산 유일, 중등 근대3종부!
하나 되어 더 높은 곳에 오르다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

근대3종 종목 중등부 유일 팀인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목보다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부산체육의 밝은 미래를 이끌고 있다.



Swimming Shooting Athletics



2024 수상 내역

제43회 회장배
남자 개인 1위, 단체 1위, 계주 2위
여자 개인 3위, 단체 3위, 계주 3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 단체 1위, 계주 3위
여자 개인 3위, 단체 3위, 계주 3위

두 명의 지도자, 두 배의 전력 강화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는 현재 11명(남 6, 여 5)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수영, 사격, 육상 세 종목 모두 기량이 출중해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지난해 안정애, 최주혜 두 명의 지도자가 새로 부임하며 더 높이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 실력은 전국에서 월등한 편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감 선생님과 감독님께서 지도자를 제안해주셨어요.”

근대3종은 수영으로 시작해 사격, 육상 순으로 경기를 연달아 진행, 기록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매긴다. 앞서 진행한 종목에서 기록이 좋으면 다음 종목에서 부담이 덜한 만큼 첫 종목인 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정애 지도자는 수영 전공자로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 모든 선수가 수영 랭킹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주혜 지도자는 오랜 기간 실업팀에서 근대5종 선수로 활약,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로 있는 동안 부산체육중학교 선수들과 함께한 인연이 있었다.

“지도자를 맡게 됐을 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워낙 밝고 긍정적이라 저랑 잘 맞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대3종부의 전반적인 훈련은 최주혜 지도자가 맡고 있다.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실력 차가 있다 보니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훈련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두 지도자의 협력이 빛을 발한다. 고강도 훈련을 따라가기 버거워하는 선수는 안정애 지도자가 기초부터 익힐 수 있도록 따로 지도한다. 근대3종부 지도자를 맡으며 최주혜 지도자를 비롯해 여러 지도자들의 훈련 방식을 보고 익혀 지금은 선수보다 나은 사격 실력을 자랑하는 안정애 지도자는 최주혜 지도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따뜻한 관심, 실력 향상의 디딤돌

지금의 열정 가득한 근대3종부를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두 지도자가 부임했을 당시에는 조금만 많은 운동량이 주어져도 선수들은 “못 할 것 같아요”라는 반응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에 몸이 반응한다.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고 바뀌어야 한다” 독려하기도 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하고 보자” 달래기도 하며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자 선수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었고, 특히 한 친구의 변화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종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훈련을 열심히 하는 날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최주혜 선생님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 그 선수는 육상에서 고등부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실력만 향상된 게 아니다. 팀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선수들에게 ‘한 팀’, ‘하나’를 강조했는데, “우리는 남자다, 여자다”, “우리는 혼자다” 장난만 치던 선수들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다”라며 진심을 다해 외치게 된 것이다. 지난 동계훈련 때는 눈보라 속에서 함께 달리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고, 이를 통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유대감은 한층 더 돈독해졌다.

부산 대표 팀으로서의 활약

“학교에서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잖아요. 그러니 부상만 없으면 운동하기에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체육중학교는 수영장, 운동장, 사격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각 종목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데 시간과 체력을 쓸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휴식을 조금 더 취한다거나 체력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창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인 만큼 특식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 특식이 제공된 날에는 확실히 선수들의 의욕이 달라진다고.

부산에서 중등부 근대3종부는 부산체육중학교가 유일하다. 보통 경쟁이 없으면 실력이 침체될 수 있는데, 부산체육중학교의 경우 부산체육고등학교 선수들과 국가대표 출신의 일반부 선수들이 종종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두 지도자들에게는 다가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또한, 근대3종이라는 종목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설 예정이다. 좋은 선수 영입이 팀은 물론 근대3종이라는 종목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선수들에게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힘들 때 옆에서 다독여 주고 기쁠 때 아낌없이 축하해주는 가족 같은 팀이 되자. 앞으로도 우리를 믿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부상 없이 조심하면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시상대 가장 위에서 있을 거라 믿는다!”



Mini Interview

부산체육중학교 교장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는 2013년 창단 이래 12년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획득 이후 꾸준히 메달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본교 팀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대3종부 선수들은 새벽 수영 훈련, 오후 레이저런 훈련, 야간 수영보조훈련 및 보강운동 등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의 성실함과 끈기, 꾸준함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상 없이, 힘들지만 즐겁게 운동하며 각자 성취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부산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해서 부산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중학교 3학년 심소현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가 코치님과 친구의 권유로 근대3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 3등, 계주 3등을 했습니다.

Q 심소현 선수에게 근대3종이란?

‘퍼즐’입니다. 퍼즐은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듯이 근대3종도 하나의 종목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최근 어떤 훈련을 주로 하고 있나요? 기록 향상을 위한 비법이 있다면?

시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사격에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훈련이 아니라 시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보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 포부 한마디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1년을 조금 더 멋지고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좋겠어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부산체육중학교 3학년 정수영입니다. 형이 근대3종을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시작하게 됐어요. 수영, 육상, 사격을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정말 즐거워요. 작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단체 1등, 계주 3등을 했습니다.

Q 정수영 선수에게 근대3종이란?

‘산소’입니다. 저한테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Q 최근 어떤 훈련을 주로 하고 있나요? 기록 향상을 위한 비법이 있다면?

수영 물잡기가 잘 안 돼서 좀 신경 쓰면서 하고 있어요. 기록 향상을 위해서 평소에 잠을 잘 자고, 밥을 많이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 포부 한마디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개인, 단체, 계주에서 모두 메달을 따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부산의 전통과 현재가 살아 숨쉬는

부산진구 & 동래구

부산진구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부산진구와 동래구는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볼링, 당구, 수영 등의 시합들이 열리는 지역이다. 부산의 젊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부산진구와 부산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동래구로 전국체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 경기장
● 관광 명소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도심 속 즐길거리의 만남

우슈, 배구, 당구 종목의 경기들은 부산진구에 소재한 여러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먼저 동의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는 우슈 경기가 열린다. 다양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우슈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빠른 동작과 화려한 기술이 특징인 우슈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배구 경기가 펼쳐진다. 배구 경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동의대학교 체육관에서는 당구 경기가 진행된다. 정밀한 기술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당구는 전략과 스킬이 승부를 좌우하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동의대학교 체육관은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최상의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진구에서 펼쳐질 전국체육대회는 선수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제공하며, 스포츠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경기 관람 후에는 서면 거리에서 쇼핑과 맛집 탐방을 하거나, 전포카페거리에서 감성적인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부산시민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하며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는 것도 추천한다.



1. 전포카페거리: 부산의 감성을 담다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인 전포카페거리는 개성 넘치는 카페와 아트 갤러리들이 자리 잡은 감성적인 거리다. 전국체전을 즐긴 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곳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부산의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끽해보자.



2. 서면 젊음의 거리: 부산의 활력을 느끼다

부산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 중 하나인 서면 젊음의 거리는 쇼핑, 맛집, 문화 공간이 밀집한 지역이다. 다양한 음식점과 스트리트 푸드가 가득해 경기 후 든든한 한 끼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3. 부산시민공원: 도심 속 힐링 공간

부산시민공원은 넓은 녹지와 다양한 문화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체전의 열기를 식히고 도심 속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곳곳에 설치된 예술 작품과 분수대, 자연 생태 공간이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동래구

▶ 경기장
○ 관광 명소



스포츠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전국체전의 무대
배구, 볼링, 펜싱, 체조, 수영, 핀수영 종목의 경기들이 동래구에 소재한 여러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먼저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 사직실내체육관에서는 펜싱과 체조 경기가 펼쳐진다. 기술과 집중력이 중요한 종목인 만큼 최상의 경기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수영 경기장인 사직실내수영장은 수질 관리와 시설이 뛰어나며, 이번 대회에서 수영과 핀수영 경기가 열린다. 동래중학교 체육관은 지역 스포츠 교육의 중심지로, 배구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아담하지만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부산을 대표하는 볼링장인 삼성스포렉스는 최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한다. 정교한

핀 세팅과 최신 시설을 갖춰 선수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스포츠 팬들은 동래구에서 펼쳐질 전국체육대회에서 짜릿한 승부와 감동적인 순간을 만끽하며, 선수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대에 열광할 것이다. 경기 관람과 함께 동래구의 온천, 금강공원, 동래읍성 등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며 부산의 매력을 만끽하는 것도 추천한다.



1. 동래읍성: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산책

부산 동래구를 대표하는 역사적 명소인 동래읍성은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과 민·관군이 왜적에 맞서 싸운 격전지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1731년 동래부사 정언섭이 증축한 것이다. 읍성 근처에는 복천박물관과 동래교분군이 자리 잡고 있어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유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장영실과학동산에서는 측우기, 앙부일구 등 조선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다.



2. 동래온천: 백학 전설이 전하는 명품 온천

동래온천은 신라 시대부터 왕족과 귀족이 찾던 명소로,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 지역이다. 허심청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녹천탕, 금천탕, 대성탕 등은 온천욕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동래온천 노천족탕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는 용머리 조형물이 인상적이다. 알칼리성 식염천으로 알려진 이 온천은 만성 류머티즘,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3. 금정산 금강공원: 도심 속 자연 속으로

금강공원은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부산민속예술관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공원 곳곳에는 일제만행희생자비, 이영도 시비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념비가 있다. 특히, 금강공원의 로프웨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복선 케이블카(1,260m)로, 금정산성 남문 근처까지 운행하며 부산 시가지와 푸른 산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장소다.





하얼빈을 뜨겁게 달군 태극전사들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

8년 만에 돌아온 아시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 동계아시안게임이 중국 헤이룽장성의 심장부인 하얼빈에서 펼쳐졌다. 34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대회를 빛냈으며,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눈과 얼음의 도시’ 하얼빈, 화려한 개막을 알리다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 하얼빈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당초 2021년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개최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겹치면서 연기된 끝에 무려 8년 만에 1996년 제3회 대회를 개최했던 하얼빈이 단독 입후보하여 2023년 7월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중국의 첫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였던 하얼빈은 29년 만에 다시 한번 아시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의 장을 꾸리게 되었다. 조직위원회는 ‘겨울의

꿈과 아시아의 사랑’을 이번 대회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120만 개의 작은 눈송이 설치물로 개회식장 전체를 장식해 ‘눈과 얼음의 도시’ 하얼빈의 매력을 선보였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 총 22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정종원, 이의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했다. 아이스하키의 이충민(블루밍턴 바이슨스)과 컬링의 김은지(경기도청)가 개회식 공동 기수를 맡아 태극기를 흔들며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 겨울 스포츠의 ‘최초’의 순간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6개를 포함해 총 4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지난 대회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크로스컨트리 선수단은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이 출전한 여자 계주팀과 정종원(부산광역시체육회)이 속한 남자 계주팀은 나란히 4위에 그치며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최초’의 기록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바이애슬론과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그리고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종목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이 탄생했다. 또한, 차준환(고려대)이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싱글에서는 김채연(수리고)이 우승하며 피겨 사상 첫 ‘동반 금메달’이라는 역사를 만들었다. 신설 종목인 컬링 믹스더블에서도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나현(한국체대)은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알렸고,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알펜시아)은 한국 선수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쇼트트랙팀은 역대 최다 메달 타이 기록(6개)을 세웠고, 최민정(성남시청), 김태성(서울시청)은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수립하며 대한민국 빙상 종목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대회는 베테랑과 신예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더욱 강해진 경기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또한 다양한 종목에서 첫 메달이 쏟아지며 대한민국 겨울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순간이었다.



역대 최다 메달 기록 달성!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6개 종목에서 펼쳐진 나흘간의 열띤 경쟁 속에서 부산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머쥐었다. 이들이 이룬 값진 성과를 함께 살펴보자.



눈 없는 도시 부산의 설상 저력

국내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어느덧 106회를 맞이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총 2,8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8개의 정식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특히 2025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직후 개최된 만큼,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은 한겨울에도 눈을 보기 힘든 도시이지만, 설상 종목에서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다. 기존 선수들과 유망주들의 활약에 힘입어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1월 사전 경기로 열린 빙상 피겨스케이팅 남자 고등부에서는 최근 청소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아론(만덕고)이 부산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18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부산 선수단은 설상 종목에서의 눈부신 선전을 바탕으로 제 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18년 연속 종합 5위'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메달 19개를 획득하며 2015년의 최다 금메달 기록인 15개를 경신했고, 총 메달 수 역시 47개를 기록하며 2023년의 35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크로스컨



트리와 알파인 등 스키 종목에서만 전체 47개 메달 중 41개의 메달을 쓸어 담으며 효자 종목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고, 다관왕도 다수 배출하며 부산 선수단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전준상(신도중)이 기록한 5관왕은 부산 선수단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178cm의 키와 73kg의 체중으로 크로스컨트리에 최적화된 유럽 선수들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그는 대회 첫날 클래식 5km를 시작으로 스프리10km △복합 20km계주 △스프린트1.2k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부산 크로스컨트리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부산 크로스컨트리의 대들보 자매'로 불리는 허부경(부산진여고)과 이의진(부산광역시체육회)은 각각 이번 대회 4관왕과 3관왕을 차지하며 '3년 연속 3관왕 이상'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기량을 갈고닦으며 차세대 국가대표의 꿈을 가꾸고 있는 알파인 스키의 최범근(부산광역시스키협회)은 남자 중등부에서 △대회전 △슈퍼대회전 △회전 △복합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부산 스키의 밝은 미래를 짐작케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올린 부산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면서 "올해는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동계체전의 성과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 전국체전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 비상!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는 한국 스포츠의 중심축으로서, 지역 체육의 균형 발전과 스포츠 문화의 확산에 기여해 왔다. 특히 부산은 총 4차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스포츠 발전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 특징을 되짚어보자.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1차 - 제38회 전국체전 (1957년)

“전국체전 지방 개최의 가능성을 열다”

1957년, 전국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방 순회 개최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 대회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기장 시설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인해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개막식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2만 명 수용 규모의 구덕운동장에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입장하려다 참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필드하키와 펜싱이 정식 종목으로 추가되고, 해외 동포 선수단이 처음 참가하는 등 발전한 부분도 많았다. 특히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선수가 최종 성화 주자로 나서며 큰 주목을 받았다. 비록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국체전이 지방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대회였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모인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부산의 발전된 해양 인프라와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며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8회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입장(부산공설운동장)

2차 - 제54회 전국체전 (1973년)

“국가적 축제로 자리 잡다”

제54회 전국체전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불안에 휩싸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8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린 이 대회는 13개 시·도에서 12,000여 명이 참가하며 큰 규모를 자랑했다. 개최식에서는 대통령 입장 직전 애드벌룬에 매달린 대형 태극기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부산 선화여상 학생들이 바느질로 긴급 복구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 대회는 다양한 화제를 남겼다. 75세 검도 선수가 출전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현역 국회의원이 역도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불굴의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었다. 경기 수준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국체전이 단순한 경기대회를 넘어 국가적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부산은 체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며, 국제 경기 유치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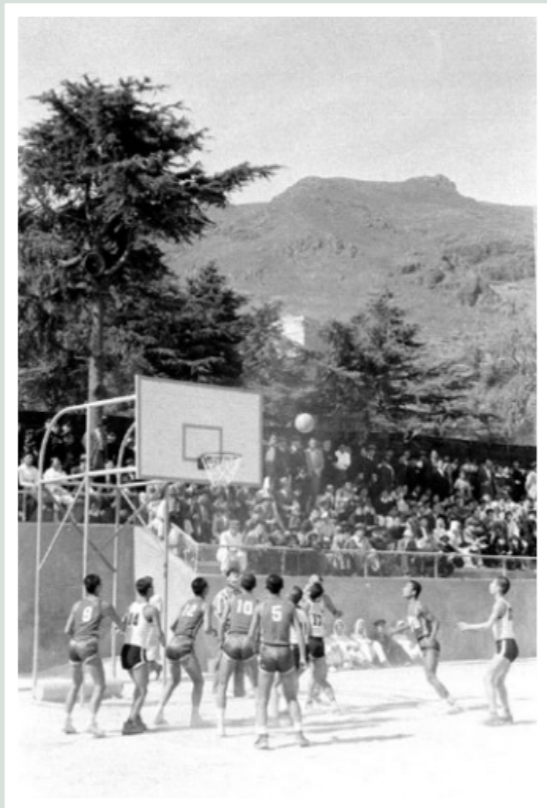
제3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선수대표 선서(부산 육상 최영기 선수)와 개최사를 하는 이기봉 대한체육회장(최초 IOC위원)

3차 - 제57회 전국체전 (1976년)

“가장 민심적인 대회로 평가받다”

1976년 제57회 전국체전은 부산 개항 100주년과 맞물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회였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해였기에 한국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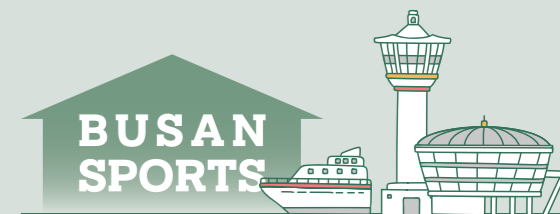
이 대회는 14개 시도에서 12,000명이 참가했고, 운영과 기록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평가받았다. 선수들의 경기력도 대폭 향상되었으며, 대한민국 체육이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전국체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한, 부산은 이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향후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제38회 육의 경기장에서 거행된 남자고교 농구 경기



제57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카드섹션과 매스게임



부산, 전국체전의 질적 향상에 기여

부산은 전국체육대회를 네 차례 개최하면서 시행 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초기에는 경기장 부족과 운영 미숙 등의 문제도 있었으나, 점차 체육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체전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했다.

특히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은 부산의 스포츠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202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의 역사는 한국 체육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산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를 접목한 행사 운영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4차 - 제81회 전국체전 (2000년)

“글로벌 도시 조약의 기회가 되다”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신화 2000'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렸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대회였던 만큼 특별한 요소들이 많았다. 성화 봉송에는 마니산, 금강산, 독도 등 여러 지역에서 채화한 불을 하나로 합쳐 '화합의 성화'로 전국을 순회하게 했으며, 이는 역사적 의미가 깊은 행사로 기록되었다. 또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리허설 성격도 띠고 있었다.

부산시는 체전 기간 동안 '광복로 거리축제', '부산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하며 스포츠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PUVI'라는 마스코트를 활용해 부산을 브랜드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대회 자체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부산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를 역량 갖춘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체육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며, 부산이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부산 개최
역대 전국체육대회 개요**

회차	개최 년·월·일	참가종목	참가인원	등위		
				1위	2위	3위
38회	1957. 10. 18.~24.	24종목	5,579명	서울	경남	경북
54회	1973. 10. 10.~17.	27종목	12,875명	서울	부산	경기
57회	1976. 10. 12.~17.	27종목	11,915명	경기	경북	전북
81회	2000. 10. 12.~18.	38종목	21,887명	경기	서울	부산

자료 출처: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sports_7330)



춤이 _____ 곧 _____ 삶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BWC댄스컴퍼니

춤에 살고 춤에 죽는 사람들이 모인 BWC댄스컴퍼니. 수많은 국내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한 데 이어 해외에서도 초청받는 그들의 무대는 무엇이 남다른지 궁금하다.

Q 'BWC댄스컴퍼니'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BWC(Busan Women's College)댄스컴퍼니는 아동예술무용과 교수진, 졸업생, 재학생과 다양한 장르의 무용가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2019년에 창단된 전문 무용단체입니다. 스트릿댄스, 한국무용, 현대무용, 벨리댄스 등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춤을 연구하고, 공연을 기획하며 춤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예술무용과 김해성 교수님이 예술감독을 맡아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약 80명의 구성원이 활동 중입니다.

Q 전국생활체육대축전 6연패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대회의 목표와 심사 기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며 연습한 것이 비결인 듯 합니다. 학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고, 동시에 춤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꾸준히 연습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 저희 팀이 계속해서 1등을 해온 만큼, 모든 팀원이 그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진지한 태도로 연습에 임합니다. 매년 강한 팀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지난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Q 댄스와 댄스체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댄스는 예술성과 표현력이 중요한 반면, 댄스체조는 건강 증진과 신체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댄스체조에 가깝고, 대회 목표가 모두가 즐기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기에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하면서 대회 목표에 부합하는 안무로 구성하였습니다.

Q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2년 연속 초청받게 되었나요?

창단 이후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해외 축제에 초청되어 무대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일교류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가하는 등 한국 춤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은 국내 공연보다 한국 전통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품을 구상합니다. 한국무용뿐만 아니라 스트리트댄스에도 탈, 부채 같은 소품을 활용하거나 퓨전 한복을 입는 등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K-POP에 맞춘 안무를 통해 현대적이면서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영화의전당에서 올린 ‘부산여자대학교 사제동행 프로젝트’ 공연은 무엇인가요?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교수님들이 창작한 안무를 졸업생과 재학생이 배우고, 함께 무대에 올리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가 춤을 통해 하나가 되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2024년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벨리댄스, 스트리트댄스, 플라멩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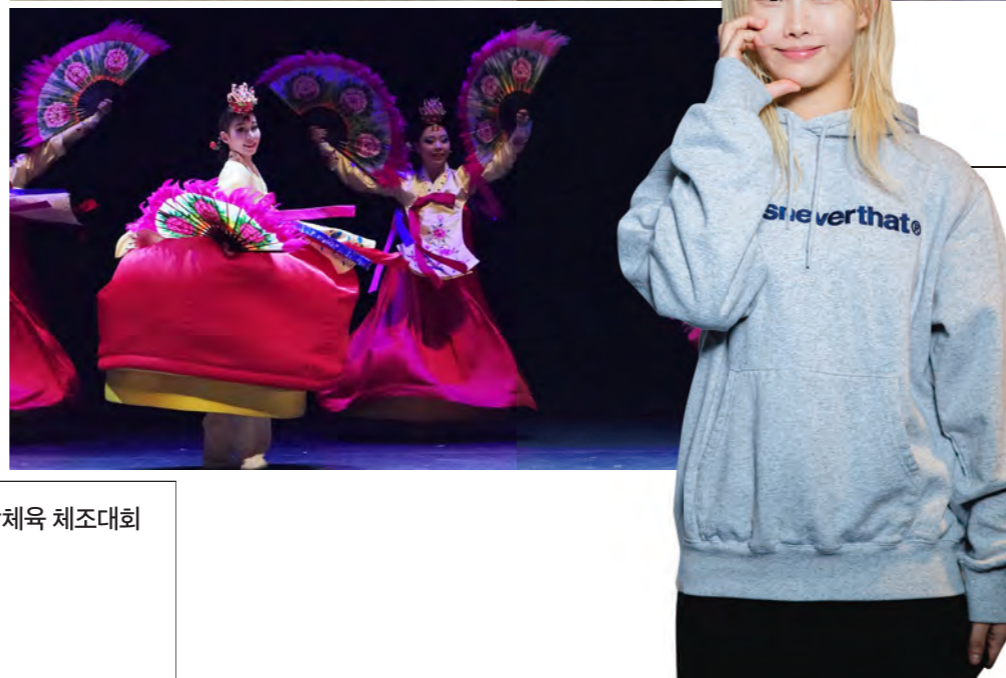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작년에 부산대학교 축제에서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뉴진스와 같은 날 무대에 올랐다는 게 짜릿하기도 했고,

그렇게 많은 관객 앞에 섰던 게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열렬히 호응해주셔서 즐겁게 무대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축제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Q 춤, 체조에 관심이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몸치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춤이나 체조는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에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에 집중하신다면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며 춤과 체조를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BWC댄스컴퍼니 수상내역

<p>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댄스체조 일반부(스트리트댄스) 1위 - 생활건강체조 일반부(에어로빅) 2위 - 종합 1위 	<p>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 체조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수련체조 대학부 1위 - 생활댄스체조부문 대학부 1위
<p>2022 전국생활체육대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 생활댄스체조분야(스트리트댄스) 1위 - 일반부 체조분야 1위 	<p>전국생활체육대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 생활댄스체조분야(스트리트댄스) 1위 - 일반부 생활건강체조분야 1위
<p>2023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 체조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수련체조 대학부 1위 - 생활댄스체조부문 대학부 1위 - 종합 1위 	<p>전국생활체육대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 생활댄스체조분야(스트리트댄스) 1위 - 일반부 생활건강체조분야 1위
<p>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 생활댄스체조 부문 1위 	<p>제13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생활체조 댄스 경연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부 스트리트댄스 부문 1위 - 전체 대상

3학년 회장 이지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처음 나갔던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배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 바빴는데, 2학년 때는 대회 흐름과 다른 참가자들의 전략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선배님들이 해오던 걸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대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BWC댄스컴퍼니의 강점은 무대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춤을 사랑해서 모인 만큼 항상 진심으로 무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에너지가 관객분들께 전해지도록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학년 회장 김도영

BWC댄스컴퍼니에서는 소속감을 정말 강하게 느낍니다. 개인적인 외부 활동으로 대회에 나간 적도 있는데 소속감의 정도가 확실히 달라요. 새벽 연습하는 날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붙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학교생활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강한 소속감이 서로를 챙기며 더욱 힘을 내게 해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실내빙상장 이용료 *2025년 3월 기준

구분	어린이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대학생, 일반)
입장료	2,500원	3,000원	4,000원
스케이팅 대여료	3,000원		
스케이팅 연마료	스피드 2,500원 / 피겨 및 하키 3,000원		
장갑 판매	매표소에서 구매		

MINI INTERVIEW

Q 간단하게 강사님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저는 부산실내빙상장에서 쇼트트랙 전임강사로 있는 이호진입니다. 사무실은 보통 피겨 선생님 한 분과 제가 있고 그 외에 프리랜서 선생님이로 쇼트트랙 네 분, 피겨 다섯 분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Q 부산실내빙상장의 규모 및 장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부산실내빙상장의 링크장 크기는 국제 규격이라 대부분의 시합들을 다 운영할 수 있어요. 관리를 열심히 해서 빙질 또한 다른 시설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1일 이용권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Q 강습을 받는 회원님들의 반응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개인적으로 동계 스포츠 자체가 호불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발이나 다리가 아프거나 넘어지는 것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보니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A 방학 시즌이면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요. 예전에 비해 강사 수가 줄어들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부산 시민들이 동계 스포츠를 좋아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같이 부산실내빙상장에서 동계 스포츠를 즐겨볼까요?

부산실내빙상장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렸다. 최근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실내빙상장 역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깔끔한 시설과 좋은 강사진들이 있는 부산실내빙상장에 대해 소개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정보도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부산실내빙상장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2005년에 건립된 부산 최초의 국제 규격의 실내빙상장이다. 해당 빙상장에는

쇼트트랙 강사 4명, 피겨스케이팅 강사 5명 등 우수한 강사진이 있으며 전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실내빙상장의 운영시간은 09:00~17:50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이다. 1일 입장권의 경우 이용 시간은 3시간 이내이며 장갑은 필수 착용해야 하고 헬멧은 무료로 대여해준다. 또한 빙상장 내부에는 관중석과 쾌적하면서 넓은 휴게 시설이 있어 시민들을 위한 편의성도 갖췄다.



겨울 바다의 주인공은 나야 나!

제38회 부산 북극곰축제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금광진

지난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제38회 부산 북극곰 축제가 펼쳐졌다. 부산 북극곰축제는 영국의 BBC방송이 선정한 '세계 10대 이색 스포츠 축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이 2만여 명에 가까웠으며 가히 국내 최고의 겨울 스포츠 축제임을 증명하듯 열기 또한 뜨거웠다.

차가운 바다에 뛰어드는 이색 스포츠인 부산 북극곰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오기도 했고, 수영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온 성인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탄탄한 몸을 자랑하는 어르신들도 참가하여 축제를 즐겼다.

광안리해수욕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콘서트의 신나는 음악은 참가자들에게 응원과 힘이 되었다. 콘서트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가자뿐만 아니라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도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포토존에서 참가자들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부터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 사진전, 북극곰과의 승부차기 대결과 농구 대결 등 다양한 게임과 스포츠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 바다 입수를 앞두고 참가자들의 준비운동이 먼저 진행되었다. '하나! 둘! 셋!' 힘찬 구령과 함께 시작된 준비운동은 제38회 부

산 북극곰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참가자들의 체온까지 높여주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참가자들은 큰 함성과 함께 바다에 입수했다. 차가운 광안리 바다에 입수하는 순간에는 긴장감에 모두가 조용해졌지만, 이내 큰 함성과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푸른 광안리 바다를 거침없이 수영하는 참가자들은 겨울 바다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앞으로도 부산 북극곰축제 같은 이색 체육대회가 부산에서 많이 개최되어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생활체육의 메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필드 스포츠 전성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필드

Ground Golf

그라운드골프



최근 골프를 비롯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와 같은 필드 스포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골프가 클래식한 매력이라면 그라운드골프는 특유의 캐주얼함이 매력이다.
필드 스포츠 3인방 중 가장 간결하면서도 개성 있는 경기 방식 덕분에
그라운드골프는 체육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라운드골프의 역사

그라운드골프는 1982년, 일본 돗토리현 도마리손 생애스포츠 활동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스포츠다. 생애스포츠 활동추진전문위원회가 도리마손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당 종목을 테스트, 개량을 거듭하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지금에 이르렀다.
기존 골프 규칙을 토대로 하되 대중성을 높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규칙을 간소화했고 덕분에 현재는 남녀노소 불문 다양한 인구가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여러 명이 번갈아 플레이하고 담소를 나눌 시간이 많아 운동 외 커뮤니티 형성 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요인들 덕에 고령화에 접어드는 현재, 차세대 대중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경주를 비롯한 전국 몇 개 지역에서 그라운드골프를 도입해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 2월,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가 창립하며 활성화되어, 공식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How to play

경기장 규격

아웃코스 4개 인코스 4개 총 8개의 홀로 구성한다.
아웃코스는 시작지점과 홀포스트의 거리를 30m 또는 50m로 하고 인코스는 15m 또는 25m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라운드골프는 홀포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경기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만큼, 플레이어 간 합의를 통해 다양한 장소(운동장, 공원 등)에서 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

코스 합의

그라운드골프는 선수들 간 합의를 통해 코스를 정할 수 있다.
플레이어들은 경기 전 각 홀의 범위를 정하고 시작점에는 '스타트매트'를 도착점엔 '홀포스트'를 세운다.

정지된 볼의 이동

볼을 임의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연 현상에 의해 이동된 볼은 그대로 두고 경기를 속행한다. 가령, 강풍이 불어 볼이 움직인 경우, 별도의 위치 수정 없는 상태로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 중의 타구 연습

플레이어는 경기 중 타구 연습을 할 수 없다. 볼을 타격하지 않는 선에서의 스윙 연습은 허용하지만 그 외 타구 하는 경우 1타를 가산한다.

출인원

각 홀 첫 타격으로 볼이 홀포스트에 들어가는 경우, '출인원'으로 기록, 합계 타수에서 3타를 감한다.

인원/장비

6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된다.
개인 장비인 클럽과 볼이 필요하다.

규칙

골프와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타수로 볼을 홀인 시키는 사람이 승리한다.

장애물

플레이어는 코스의 장애물을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초목을 밟아 길을 내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등 행위도 금한다.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1타를 가산한다.

등위 결정

순위는 최저 타수로 정한다. 다만 동타일 때는 출인원 수가 많은 자, 2타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특징

정식 규격에 따라 경우 축구장 면적에서 200여 명이 동시에 운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공간 활용 측면에서 뛰어나다. 플레이어 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친목도모 등 운동 외적인 효과도 탁월하다.

코스를 플레이어들 간 합의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다양한 장애요소가 발생한다. 잔디의 높이, 나무, 돌, 웅덩이 등이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장애요소에 따라 시작지점을 달리하는 등 전략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골프를 간소화한 스포츠인 만큼 코스 길이가 짧다. 때문에 한정된 시간을 설정해서 순발력을 요하도록 하는 경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경기를 진행하는 것 역시 그라운드골프의 재미를 배가한다.

장비

클럽(Club)

골프와 달리 하나의 클럽만 사용한다. 손잡이, 샤프트, 헤드로 구성돼 있으며 골프 클럽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볍다. 플레이어의 신체조건이나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클럽을 선택할 수 있다.

클럽 선택 시 고려사항

길이 신장을 고려해 80~90cm 내외로 선택
무게 클럽의 무게에 따라 타구의 세기, 정밀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감안하여 선택
소재 주로 알루미늄, 탄소섬유, 합성수지 등

그 외 장비

그라운드골프의 특성상 경기장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지면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운동화나 골프화 착용을 권장한다.
그 외 모자, 선글라스, 장갑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장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스타트매트(Start mat)

티(Tee)를 대신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출발 지점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어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시작점에 설치한 후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홀포스트(Hole Post)

그라운드골프의 특징을 드러내는 장비다.
골프나 파크골프가 지면에 직접 홀을 파는 것과 달리 그라운드골프는 홀포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깃대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 볼이 진입하면 홀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볼(ball)

크기 지름 6cm
무게 70~95g
플라스틱 소재로 비거리가 짧고 강한 타격 시 깨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작은 실행의 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 / 출판사 현대지성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준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연료와 같다. 만약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더 이상 동기부여 강의나 좋은 글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행동이 습관이 된다면?

한국직무능력개발원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매달 평균 15만 원을 동기부여 콘텐츠에 소비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8.7%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대한민국 직장인의 91.3%가 실질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동기부여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는 매일 '갓생'을 다짐하지만, 결심은 채 3일도 가지 못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인생은 여전히 제 자리걸음이다. 밤마다 “하루 1시간 일하면서 월 천만 원 벌기”, “디지털 노마드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일하기” 같은 쇼츠를 보며 내일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어제의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환멸과 깊은 피로감이 남는다. 그리고 무심코 중얼거린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세계적인 자기계발 거장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를 '가짜 동기부여'라고 정의한다. 가짜 동기부여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순간의 설렘만 남길 뿐이다. 마음 속에 잠시 반짝였던 열정은 며칠이 지나면 사그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동기부여 글귀나 강의를 찾아 헤맨다.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정작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점점 멀어지고 만다.

그렇다면 브라이언은 어떻게 시급 25센트의 잡초 제거 아르바이트에서 회당 8억 원을 받는 강연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실천한 '진짜 동기부여'는 놀랍도록 단순하다. 바로 '행동'이다. 40년 동안 워런 버핏, 앤디 그로브와 같은 세계적인 성공가들을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아주 작은 행동의 누적'이었다. 어제보다 1% 더 나아진 행동이 무기력을 성취감으로 바꾸고, 잠자던 성장 본능을 깨워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세상은 종종 성공을 과대포장하며 손쉬운 비

법을 강조하지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작은 실천들이 있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을 위한 실천과 노력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성공 메커니즘을 10가지의 명쾌한 프로세스로 엮어낸다. 먼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누구든 원한다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이끌고, 자신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목표의 시각화와 언어화, 스스로를 응원하는 긍정 확언, 시간 관리 사본면을 활용하는 등 꿈꾸는 인생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안내한다.

결국, 저자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로 귀결된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





2025년 부산체육발전 혁신계획 본격 가동 조직 개편 및 위원회 대폭 재정비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월 『부산체육발전 혁신계획』을 내놓으면서 새해 첫 신호탄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위원회를 대폭 재정비하였다. 2월 14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조직 개편과 위원회 재정비를 통한 위원장 위촉에 대한 심의가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변화에 첫 시동이 걸렸다. 먼저 조직 개편이 눈에 띈다. 체육계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사무처장 직속의 공정기획감사실을 신설하고 3월 정기 인사를 통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 자문기구로 11개의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스포츠융·복합산업위원회 6개의 위원회로 새롭게 구성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조직 개편과 위원회의 재정비가 부산체육의 새로운 변화에 첫 시작임을 알리며,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체육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층



경영지원본부

5층



전문체육본부



생활체육본부

부산광역시체육회-(주)부영티씨 공식 스폰서 업무협약 및 후원물품 전달식 진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7일(금) 신발 강소기업인 (주)부영티씨와 공식 스폰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지방체육회 최초로 운영하는 공식 후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육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향후 부산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사인 (주)부영티씨는 부산광역시체육회의 회장 및 공식 후원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회 주관의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홍보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등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공식 스폰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후원물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주)부영티씨는 특허받은 기능성 슬리퍼 워콘(walkon) 500컬레 총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체육회 측에 전달했으며, 이 제품은 운동 후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고, 증감소음을 줄이는 기능이 우수해 실내외 어디서나 착용하기 적합하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주)부영티씨와의 공식 스폰서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후원사가 제작·유통하는 기능성 슬리퍼 워콘(walkon)이 부산 시민들의 건강 부분에서도 한층 더 그 입지를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제22차 중구체육회 이사회 및 2025년 중구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2월 14일(금), 제22차 중구체육회 이사회를 부산호텔 빛가람홀에서 개최하였다. 2개의 보고사항과 11개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회원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구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2월 21일(금)에는 2025년 중구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개의 보고사항과 4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원활한 협회 운영과 대회 개최를 위한 의견 등을 논의하고 협회와 체육회 발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서구보건소,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2월 11일(화), 서구보건소 소장실에서 서구체육회와 서구보건소 간의 지역사회 건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강 증진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 △어린이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 및 인적 자원 지원 협력 △기타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에 따른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서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동구체육회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2월 12일(수), 동구체육회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하였다. 동구체육회 황현선 회장의 힘찬 인사말로 시작한 이사회는 전차회의 요약보고 및 총 5개의 안건을 원안승인하였다. 올해에도 동구체육회는 '하버시티동구'의 미래 비전과 발맞추어 체육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임원들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영도구체육회



2025년 영도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2월 20일(목)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결과 외 보고사항 3건을 보고하였고,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안) 외 1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은 “앞으로도 체육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도 체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체육회의 도약을 다짐했다.

부산진구체육회



2025년도 제1회 부산진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2월 20일(목) 서면 월강에서 2025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는 부산진구체육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여러 심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체육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이사회에는 김영옥 부산진구청장이 방문하여 “부산진구체육회의 발전이 곧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체육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이번 이사회는 부산진구체육회의 운영 방향과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구군체육회 소식

동래구체육회



2025년도 동래구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2월 19일(수), 동래구체육회는 동래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차 이사회 결과 등 3건을 보고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안) 등 6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구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사회의 주요 사항은 사무국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과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등이었다.

동래구체육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체육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동래구체육회 정길호 회장은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고, 지속적인 체육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남구체육회



2025년 남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남구체육회는 2월 7일(금)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남구체육회 회의실에서 2025년 남구체육회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보고사항으로 감사보고, 2024년도 남구체육회 이사회비 결산, 공지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심의사항으로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남구체육회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를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2월 21일(금)에는 2025년 남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남구체육회 공지사항 등을 보고하고,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북구체육회



202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북구체육회는 3월 4일(화)~4월 30일(수) 두 달간 생활체육 무료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목은 태보, 수영, 실버에어로빅 총 세 종목으로 구성하였다.

태보는 태권도와 복싱을 결합한 운동으로 동아대태권도체육관에서 화, 목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15명이다. 수영은 초보자들에게 맞춰 발차기부터 시작하고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월, 수, 금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실버에어로빅은 1965년생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월, 수, 금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북구체육회는 이번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북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운대구체육회



제45차 해운대구체육회 이사회 개최

2월 20일(목), 해운대 마리나블루키친에서 해운대구체육회 이사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회원종목 단체 대회 개최 결과, 2024년도 회계 및 행정업무 감사결과 등 보고사항 5건과 심의 안건 8건이 있었고 원안가결되었다. 이후 기타 토의시간을 활용하여 해운대구체육회가 2025년도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사하구체육회



2025년 사하구체육회장기 및 제24회 사하구협회장기배드민턴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는 2월 23일(일) 강서체육관 주경기장에서 2025년 사하구체육회장기 및 제24회 사하구협회장기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사하구배드민턴협회 등록회원 선수들이 참가해 급수, 종목, 연령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는 종합우승 위너스클럽, 2위 사하스포츠클럽, 3위 한샘클럽으로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대회를 마무리하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 제20차 이사회의 개최

지난 2월, 금정구체육회는 금정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제20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금정구체육회 최규원 회장은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전하며, 2025년에는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노력할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1부 행사에서는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개의 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2부 행사로는 만찬간담회를 가지며 2025년 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목표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강서구체육회



2025년 강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강서구체육회는 2월 18일(화) 강서문화원 4층 강당 회의실에서 대의원 26명이 참석하여 2025년 강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진행하였다. 보고 안건 5건과 의결안건 5건을 의결 승인하였으며 주요안건은 2024년도 사업 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의 건, 강서구체육회 정회원단체 강등 승인의 건, 강서구체육회 임원 선임(안), 강서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안), 강서구체육회 감사 선임(안)이었다. 이어서 기타 안건토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연제구체육회



2025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월 12일(수), 연제구체육회는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임원 38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연제구체육회 임원 선임 현황 등의 보고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서 2월 19일(수)에는 연제구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제구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연제구체육회 현황 보고와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5 수영구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2월 20일(목) 수영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영구체육회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2024년도 경과 및 사업결과,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및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계획(안),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구체육회 황대성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체육회와 늘 함께해주시는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에는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며 한 단계 성장하는 수영구체육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사상구체육회



2025년 사상구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2월 21일(금), 사상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구체육회 1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는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신임 임원 및 이사의 위촉식이 진행되어 새로운 이사들이 공식적으로 자리를 맡게 되었다.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 보고와 2024년 사업 결산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안건이 심의되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는 사상구체육회의 향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으며,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되었다.

기장군체육회



2025년 기장군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기장군체육회는 종목별 회장선거 이후 첫 2025년 기장군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기장군체육회 임원 현황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하였고, 심의 안건으로 2024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처리, 기장군체육회 정관일부 개정, 기장군체육회 임원 선임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올려 4안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제22회 꿈나무체능단 졸업식

지난 2월 22일(토) 부산국민체육센터 문화관에서 꿈나무체능단 7세 졸업생 17명, 6세 수료생 10명을 대상으로 제22회 졸업 및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졸업 및 수료생들은 정들었던 체능단을 마무리하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과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은 참석한 단원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축사를 전했으며, 체능단원들은 즐거웠던 추억을 뒤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25년 하반기 노후 시설물 안전 보강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민 체력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북구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10월 개관 이후 14년 차에 접어든 노후 시설물로 그간 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박성훈 국회의원의 지원 및 북구청, 센터관계자 등의 노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 구비 5억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을 보수 정비할 예정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개인 사물함 교체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회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 사물함을 교체하였다.

새 사물함 교체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에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영도국민체육센터



2025년 2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실내축구교실' 개강

영도국민체육센터는 2025년도 춘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 형성과 체력 증진 및 건강 관리를 위해 '실내축구교실'을 진행하였다. 2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4주간 진행된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은 춘계방학 기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리더십과 협동심 길러주고 나아가 사회성을 배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3월부터는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실내빙상장



KNN 굿모닝 투데이 프로그램 출연

부산실내빙상장은 2월 25일(화) KNN 굿모닝 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실내빙상장 시설 및 유소년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소개하였다.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의 종목에 유소년 선수 및 코치들이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소개되었다. 부산실내빙상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산실내빙상장의 발전 및 빙상종목 저변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테니스장 일일 입장 이용객 주차지원 시스템 개편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이 협업하여 QR코드 발급 시스템을 도입, 사전무인정산기를 설치하였다. 기존의 불편했던 주차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시간 혜택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테니스장 일일 입장 이용객은 언제든지 QR코드를 발급받아 주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이용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평장림체육관



체육관 방역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은 회원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온 상승과 함께 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는 체육관 전역에 방역을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동의 질을 높임으로써 회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는 2월 18일(화) 호텔농심 내당에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주)머거본, 세계식품(주) 대표이사인 신주식 제21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 취임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16개 구·군 테니스협회장, 테니스 육성교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어서 2024년도 정기 감사결과 보고, 부산오픈 테니스 대회 결과보고, 2024년도 결산 승인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신주식 제21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은 테니스 발전을 통해 부산이 테니스 종목의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농구 전문 선수단 창단식 개최

2월 22일(토), 부산 동의과학대 석당문화관 실내체육관에서 동의과학대 스포츠클럽 농구교실에서 농구를 배우는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농구 전문반, 엘리트부 창단식이 열렸다. 초대 감독으로 전 프로선수 강지우 감독이 선임되었으며, 장상현 코치와 함께 6학년 5명, 5학년 6명의 선수로 동의과학대 스포츠클럽 농구 전문 선수팀이 탄생했다. 장상현 코치는 “취미반에서 농구를 배우던 선수들이다 보니 성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엘리트 농구를 접하면서 실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동의과학대 스포츠클럽 농구 전문반은 3년 전 준비를 시작했다. 동의과학대 스포츠클럽 허성우 사무국장은 “점점 사라져가는 농구 전문 선수단을 보며 지역 내 농구 인재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번 농구 전문 선수단 창단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이자, 우리 클럽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어린이가 농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단식을 마친 이들의 첫 공식 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이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의 <푸른 바다, 큰 꿈> 인터뷰 대상은 부산체육중학교 근대3종부입니다. 근대3종은 이름과 같이 3가지 종목이 하나로 구성된 종목인데요. 3가지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수영 ② 승마 ③ 사격

2 부산은 올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는데요. 부산에서 처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년도는 언제일까요?
① 1957년 ② 1973년 ③ 2000년

3 『부산체육』에서는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번 호 인터뷰에 나오지 않은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① 그라운드골프 ② 복싱 ③ 펜싱

『부산체육』 제75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1. ① 영도구 2. ③ 스키 3. ③ 스노우보드	한*경(3528) 구*울(9137) 백*현(4501) 서*호(1707) 전*란(8091) 조*란(7625) 오*주(7887) 설*혜(5969) 조* (5969) 박*숨(5407)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근대3종은 ○○으로 시작해 ○○, ○○ 순으로 경기를 연달아 진행, 기록을 점수화하여 순위를 매긴다.
<푸른 바다, 큰 꿈> 15쪽

2 **힌트** ○○○○년, 전국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지방 순회 개최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닌 대회였다.
<전국체전 trivia> 27쪽

3 **힌트**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체육인>, <금빛 훈련일지>, <푸른 바다, 큰 꿈>, <함께하는 부산체육>
목차 2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응모 기간	2025.3.17.(월)~2025.3.31.(월)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77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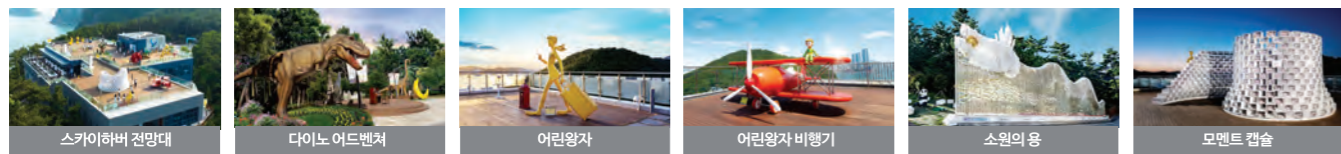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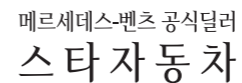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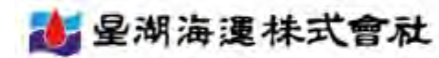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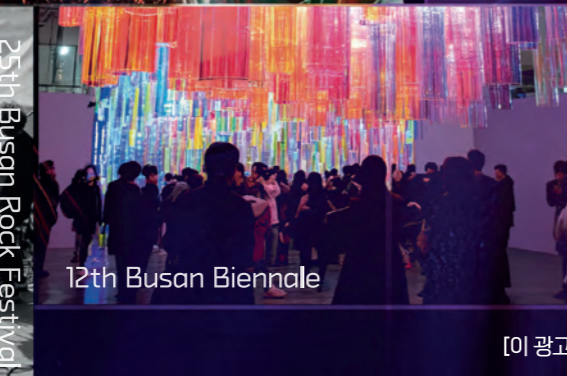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12th Busan Biennale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